

### 입학생 전원에 장학금 등 혜택

#### 부산 동명대 불교문화학과 신설

종립대학 외 4년제 종합대학으로 처음으로 부산 동명대에 불교 관련 학과가 신설된다.

부산 동명대(총장 이무근)는 '불교문화학과'를 신설해 11월 23~26일 수시2차 모집기간 중에 첫 신입생 40명을 선발한다고 5일 밝혔다.

불교문화학과는 불교학전공, 불교문화전공, 불교사회전공 등 3개 전공으로 구성됐다. 수시 선발기준은 고교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 종단추천을 받은 자 가운데 '학생부 80%, 면접 20%' 방식으로 40명을 선발한다.

동명대는 불교문화학과 신입생들에게는 불교계, 불자기업 등과 협력

해 입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복수전공제를 통한 2개 학사학위 획득과 겨울방학 해외 구법순례 활동 실시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동명대 관계자는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 조직화 현대화 국제화 등 불교계 5대 혁신운동'의 주체인 청년불자 운동의 지도자 양성을 위해 '불교문화학과'를 신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동명대는 불교문화학과 신설을 시작으로 불교학부 및 석사·박사과정, 불교문화연구소 및 불교문화전시관 등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 백상원 건립기금 쾌척

### 지관 스님, 동대 이사장 정련 스님 만나 15억원 전달

동국대 학인스님들의 수행공간인 백상원이 새로 지어진다.

조계종 총무원 전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임기말인 10월 27일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을 만나 수행관(백상원) 건립기금으로 써달라며 15억원을 전달했다.

이날 정련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해 종단의 많은 분들이 수행관 건립불사에 힘을 보태 원력에 감사하다"며 "그 원력이 모여 30여 년간 동국대의 숙원이던 학인스님들의 수행공간이 마련되게 됐다. 부족함 없는 쾌척한 수행관을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회계사 경내 초입에 자리한 백상원은 그동안 부실공사 등에 따른 불편이 컸다. 부실한 시설에서 어렵게 학업중인 스님들에 대한 소식이 교계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중앙총회에 '종비생수행관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활동해 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왼쪽에서 세번째)은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오른쪽에서 두번째), 상임이사 성관 스님을 10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 만나 수행관 건립기금 15억원을 전달했다.

동국대는 조계종 총무원이 기탁한 15억원에 학교 출연금 10억원, 2006년 교육원이 건립기금으로 기부한 5억원 등을 보태 서울 회계사 경내 달마선원 자리에 백상원을 새로 짓는다는 계획이다. 지면서 중앙총회에 '종비생수행관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활동해 왔다.

동국대 상임이사 성관 스님은 "수행관 불사는 종단이 인재양성과 교육불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력한 결과"라며 "이번 불사를 계기로 동국대 등 중등교육기관에 대한 종단차원의 지원과 협력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여수세계박람회 발언 종교차별”

#### 문광부 종교차별신고센터 자문위 판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산하 종교차별신고센터 자문위원회는 여수세계박람회 담당자 발언(‘2012 여수세계박람회는 하나님의 은혜’ 등)이 종교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세영)는 문광부 종교차별신고센터에 총 6건에 대한 종교편향을 신고했고, 이에 종교차별신고센터는 10월 28일 자문회의 결과를 우편을 통해 회신했다.

종교차별신고센터는 회신을 통해 여섯 사안 중 여수세계박람회 담당자의 발언이 공직자 종교차별에 해

당하며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종교차별신고센터는 이 밖에 △울산고등학교 특정종교 복음회에 학교시설대관 △치천초등학교에 특정종교예배시 학교시설 대관 △부여보건소 출장 진료시 특정종교시설에서 진행 △제천시 성시화축제 후원 명칭 사용 등은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기관에 주의를 요망했다.

종교차별신고센터는 “다종교인과 무종교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혔다. **박선주 기자**

## “종교평화블로거 종교인권 지키길”

### 종교평화위·불교아카데미 ‘종교평화블로거 양성과정’ 첫 수료

종교평화위원회(공동위원장 세영·손안식)와 불교아카데미(원장 박희택)가 종교평화 실현과 종교차별 방지를 위한 ‘종교평화블로거 양성과정’ 수료식을 11월 4일 만해NGO센터에서 가졌다. 수료식은 30명에게 돌아갔다.



11월 4일 만해NGO센터에서 열린 '제1기 종교평화블로거 수료식'에서 수료증을 받은 불자들이와 손안식 종교평화위원회 공동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

손안식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번 ‘아름종교 간대화’에서도 종교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며 “첫 발걸음이 부담스럽지만 매스미디어의 과잉력에 힘입어 종교평화블로거가 활발한 활동으로 종교인권, 종교자유 확산에 힘써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종교평화블로거 송상훈씨는 종교차별 현장을 담은 사진을 소개하며 종교평화 블로거의 정당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또 손씨는 사찰의 세

금문제를 짚어가며 “이런 것을 감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예방주사가 돼야한다”는 지적도 했다. 종교평화블로거 양성교육을 수강한 30명의 불자들은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제작한 블로그에 일기, 칼럼, 기사 등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 커뮤니티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하는 일종의 1인 미디어 활동을 전개한다. 교육은 주관한 종교평화위원회의

불교아카데미 측은 “종교차별에 대한 기존 언론의 보도태도는 조심스러워 블로그를 통해 종교차별 근절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교와 세상이 만나는 불교온라인 네트워크 활동이 결국 불교계의 ‘디지털 인맥’을 형성할 것이다”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종교평화위원회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11월 15일 까지 ‘제1기 종교평화 블로거’를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글, 사진, 동영상, 그림, 카툰 부문이다. 선발된 기자들은 소정의 활동비와 기사 채택시 원고료가 지급되고, 90%이상의 출석률을 보이는 이에게 활동증명서 발급 등의 혜택을 준다. 이메일 bsr@buddha21.org로 접수가능하다. (02)2278-1141 **박선주 기자**

### “예일대는 기본 윤리 지켜라”

#### 東大, 예일대 언론 대응 및 소송지연책 비판

동국대가 예일대에 5000만 달러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예일대 측이 미 현지 언론에 동국대 전 이사장 영배 스님의 유죄판결까지 언급해 물의를 빚고 있다.



동국대 한진수 부총장.

동국대(총장 오영교)는 11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예일대 측이 소송과 관련 없는 사건을 언급함으로써, 2007년에 이어 또 다시 동국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예일대가 언론 대응시 기본적인 윤리를 지키길 촉구했다.

10월 30일자 ‘뉴욕타임즈’에서 예일대 대변인 톰 콘로이(Tom Conroy)는 “예일대에 과실(negligence)이 나 중과실(recklessness)의 책임이 없다”며 “과거 동국대 이사장이 신씨의 애인 영군 전 대통령정책실장에게서 불법 지원금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배심원들이 꼭 고려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예일대 측은 26일자 ‘주간조선’에 게재된 ‘10월 13일 예일대 언론성명서’에서는 “동국대는 불필요한 소송을 걸었으며 예일대가 모든 소송사항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밝혔다.

동국대 한진수 부총장은 “특별교부세 지원은 (신정아씨 학위취득과 관련한) 본 소송과 관계가 없다. 특별교부세 사건을 이슈화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이는 (동국대에 대한) 추가적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한 부총장은 예일대에 △언론 발언시 기본 윤리 준수 △소송과 무관한 일로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는 행위를 중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날 동국대는 증거조사 절차에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20일 미국 코네티컷 현지법원에 소장 변경신청을 한 내용도 공개했다.

수정 소장은 2007년 예일대가 학내에 보관된 담당자 문서 파일을 확인도 않은 채, “신정아 학위 확인 요청 문서를 받은 적이 없고 예일대가 발송한 학위 확인 팩스도 위조된 문서”라고 주장한 내용 등을 담았다.

한진수 부총장은 “소송 개시 이후 예일대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소송의 지연을 유도해 왔다”면서 “12월 초 예정된 증인신문과정(Deposition)에서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배우 한지민씨, 최빈국 아이돕기 대학생정토회 ‘작은짜이집’ 거리모금

대학생정토회 국제활동팀 ‘작은짜이집(이사장 박민)’은 11월 7일 서울 인사동거리에서 최빈국 아이들을 위한 모금활동을 펼쳤다.



배우 한지민씨.

이번 모금활동은 배우 한지민씨와 ‘작은짜이집’ 활동을 하는 전국 대학생들이 함께 뜻을 모았다.

한지민씨는 이날 필리핀 민다나오 오지마을인 ‘알라원’에 봉사활동을 다녀와서 쓴 도네이션북 <우리 별써 친구가 됐어요> 기부 싸인 회를 열었다. 또 한 씨가 직접 인도 전통차 ‘짜이’를 시민들에게 나눠

주며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모금활동으로 벌인 수익금은 전액 민다나오OTS를 통해 필리핀 아이들에게 학교와 학용품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작한 배우 한지민씨와 ‘작은짜이집’ 활동가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한씨는 바쁜 연기활동 중에도 ‘문명퇴치기구JTS 거리모금’에 항상 참여했고, 이번 여름에는 민다나오 알라원 마을에서 일일교사로 활동했다. **박선주 기자**

**社告**

### 2009빛고을불교아카데미

여래의 使者를 만나다-한국불교 포교의 신화를 일구는 스님들

일시:	2009년 10월 27(화)~12월1일(화)	공동주최:	광주불교사암연합회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불교TV	
장소:	광주 동구 KT문화관 대강당	현대불교	

1강	10/27	신심과 원력의 길	해인스님(제주 약천사 회주)
2강	11/3	업력의 삶과 원력의 삶	정락스님(전조계종 포교위원장)
3강	11/10	도심 속 천년사찰을 깨우다	명진스님(봉은사 주지)
4강	11/17	아름다운 불광공동체	지홍스님(불광사 회주)
5강	11/24	수행,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찾다	법륜스님(정토회 지도법사)
6강	12/1	시심(詩心)으로 세상을 깨우다	청화스님(전 조계종 교육위원장)

## 태성전기난로

# 올겨울 추위, 난방비 걱정 끝!

## 2010년형 특별보급가! 특별보급 68,000원

좋은 화력 / 저렴한 유지비 / 잔고장이 없는 / 태성전기난로

실내전체가 훈훈해지는 태성전기난로

일반히더는 히터 주변만 따뜻하지만 태성히터는 실내온도를 상승시켜 실내공기를 훈훈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스토브가 넘어지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전도 안전스위치 부착”

**태성전기난로 이런 곳에 사용하세요**

- 24시간 쾌적한 난방이 필요한 곳과 지속적인 연료 주입이 어려운 장소
- 상주 인구가 많아 산소결핍으로 자주 환기를 해야 하는 곳
- 이동 인구가 많아 시설물 손상에 의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곳
- 대형매장이나 식당 등 주난방은 있으나 사각지대가 있어 보조난방이 필요한 장소

**100% 국내산/중국산과 비교불허!**

- 복고풍 디자인의 안전한 전기히터
- 좁은 공간에서도 편리한 소형본체
- 전도 안전 장치로 쓰러지면 자동으로 전원차단
- 이동이 간편하고 온도조절이 용이
- 상판위에 물을 대워 실내가습효과
- 360도 전방향 적외선 열기전달
- 무소음 / 무취 / 무연

**1년 무상 A/S보장!**  
**저렴한 유지비로 초강력 난방**

주사용처 : 사무실 등 협소한 장소, 이동이 잦은 곳, 접객업소(식당/주점/펜션)

### 구입문의 : 080-800-0022

입금계좌 : 농협 302-0127-6837-61 양영수 (택배비 2,500원 소비자 부담)

www.tsheater.com